

요나 1:1-3

친구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랑 게임을 하나 해 볼게요.

규칙은 간단해요.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처럼 목사님이 말하면 반대말을 외치면 됩니다. 한 번 연습게임 해 볼게요!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 좋아요. 준비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해 보겠습니다. 위 → 아래 / 앞 → 뒤 / 크다 → 작다 / 많다 → 적다 / 길다 → 짧다 / 덩다 → 춥다 / 밝다 → 어둡다 / 웃는다 → 운다 / 앉아 → 일어나 / 엄마 → 아빠 / 할머니 → 할아버지 / 형 → 동생 / 낮 → 밤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2라운드! 이번엔 청개구리처럼 목사님이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돼요. 연습게임이에요. 수박! [박수] / 박수! [수박] 네 몇 개만 해 볼게요.

토끼 - 끼토 / 사과 - 과사 / 바지 → 지바 / 모자 → 자모 / 우유 → 유우
나비 → 비나 / 기차 → 차기 / 가방 → 방가 / 바나나 → 나나바 / 토마토 / 토마토

이번엔 마지막 3라운드!

목사님이 말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왼손 드세요! [오른손 들어야함]

앞으세요! → 일어나기 / 일어나세요! → 앉기 / 앞으로 한 걸음! →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 앞으로 한 걸음 / 손을 아래로! → 손을 위로 / 눈 감기! → 눈 뜨기

잘했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텐데, 모두 잘 해 주었어요. 말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청개구리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요나예요. 오늘은 이 요나 이야기를 같이 들을 거예요.

친구들, (클릭)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친구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클릭) 반대 방향에 있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배를 탔어요. 도망쳤어요. 왜요?

친구들, 니느웨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예요. 앗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니느웨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치가 떨리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하

나님 전하다가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도망친 걸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가 뭔지 목사님이 이야기해줄게요.

사실 요나는 '선지자' 예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지난 주 우리 설교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마음, ㅇㅇ' 뭐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니르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들을 용서하실 거야. 그게 싫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니르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안 믿어서 혼났으면 좋겠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는데, 그 마음이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맨날 못되게 굴고, 나를 놀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말해줘야 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별로 안 친한 친구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엄~청 친해지고, 나는 친구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클릭) 엄청난 폭풍이 다가왔어요.

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 번 알아봅시다.

목사님을 따라해주세요.

손으로 무릎 살살 두드리기 → "이게 빗소리예요"

조금 더 세게 →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발 구르기 추가 → "천둥이 쳐요"

"휘이이이!" 다 같이 → "바람이 불어요"

손뼉 빠르게 → "파도가 쳐요"

다 같이 최대한으로 → "폭풍이 왔어요!"

췌! 이 폭풍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난리가 났는데 혼자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폭풍이 나 때문이야.'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 감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게 고백했어요. "이 폭풍은 나 때문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선원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 순간, 폭풍이 멈췄어요. 그리고 친구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친구들, 지금 눈을 감아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이에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이 물고기가 요나한테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잠깐 생각해봐요. 만약 물고기가 없었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바다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도망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 떠요.

요나는 그 어둠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이번엔 요나가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딱 한 마디를 외쳤어요.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게 다예요. (사실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해야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은 둘러보는데만 3일이 걸릴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어다니며 아까 저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에게 혼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이 회개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싫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릭]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 4:11)

친구들, 12만 명이에요. 이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알려주고, 가르치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요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도, 나를 괴롭힌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이에요. 좋은 사람만, 착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친구들,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요나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다 싶어요. 우리 마음 속에도 요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 잘못된 게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도 한때 누군가의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니느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친구들, 마음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가까이 가기 싫은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못되게 구는 친구, 같이 있기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에게 니스웨예요. 하나님은 그 친구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친구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게 어렵죠.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요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솔직한 마음도 아세요. 그런데 기억해요. 요나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우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지난 주에 복음 바톤 이야기 했죠? 요나는 바톤을 받았는데 도망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순종했을 때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손에서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안에 엄청난 일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본이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